

Journal of Kijeon Cultural Studies, Vol. 41, No. 2, December 2020
<http://dx.doi.org/10.26426/KCS.2020.41.2.135>

한국 대중음악 중심 장소로서 부평 연구

이 장 열*

국문 요약

부평지역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했던 원인과 동력을 대중문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부평에는 대중문화가 꽃피울 여건이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과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서 각각 소비, 유통, 생산(창작) 요소들이 아주 가까이에 마련되어 있었고, 이를 경제적 여건들이 뒷받침해 주시면서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지금껏 부평 대중음악은 소비 측면, 곧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클럽 존재에만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 중심지이었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서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뿐만 아니라, 부평 신촌과 부평 삼릉은 한반도에서 유일 무일하게 한국대중음악 중심지로서 요소를 완전하게 갖춘 지역임을 생산, 소비, 유통 대중문화의 기본 범주를 설정해서 이를 이론적으로 확인하는 검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따라서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부평 신촌, 부평 삼릉 세 군데 장소를 한국대중음악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근거해서 활용하는 것이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가는 기본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이 연구의 성과물이다.

주요어 :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부평 신촌, 부평 삼릉, 미8군 오디션, 미8군 픽업장소

* 문학박사, 경인교육대학교 기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

1. 연구 개요

1) 연구 배경

본 연구는 부평이 한국대중음악 중심지임을 새로운 기초 자료들을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중문화이론을 접목시켜 증명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1950~60년대의 부평은 미군기지 애스컴(ASCOM, United States Army Support Command City)을 거점으로 부대 안팎에 음악클럽이 존재했다. 미군클럽을 통해 스윙, 재즈, 블루스 리듬 등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었다. 미군기지 내 클럽 안에서 연주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미8군 오디션에 통과해 무대에 오른 뮤지션은 당시 방송을 타고 전국에 알려졌다.

당시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던 부평은 국내 음악가들의 활동 무대이면서 다른 지역 진출을 위한 주요 거점이었다. 또한 국내 대중음악에 스윙, 재즈, 블루스 리듬이 새롭게 유입되는 통로 역할을 담당했었다.

이 연구는 부평이 지닌 역사를 바탕으로 여지껏 연구하지 못했던 부평 대중음악 자원을 발굴하여 대중문화 시스템을 접목시켜서 부평의 대중음악사적 가치를 재발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연구는 부평의 대중음악의 자산들을 역사, 문화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부평 대중음악의 기초적인 근거를 찾아내고, 이후 이 연구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였다.

부평 지역의 대중음악 자산들을 새롭게 발굴하고 발견하는 것은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가는데 다른 지역과의 분명한 차별성을 확보하고자 하고자 하는 의도다.

곧 부평지역이 대중음악을 흡수하고 확산시키는 대중문화의 기반과 자산을 재발견하여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배경이다.

2) 연구 목표

본 연구는 부평 대중음악의 장(場)이 펼쳐진 미군수지원사령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장소성을 대중문화 관점에서 대중음악 자산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이라는 한국 대중음악에서 있어서 중요한 장소성을 재발견하고 대중문화의 관점에서 부평 대중음악 자산들을 새롭게 재조명해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갈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둘째, 부평 음악도시를 뒷받침해 줄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개발 계획 수립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 중심지였던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다양한 대중음악 자산들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함과 아울러, 부평 대중음악 자산들이 지닌 역사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표를 둔다.

셋째, 부평 주민들이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음을 실제적인 근거를 통해 환기시킬 수 있을 자료들을 초보적인 수준에서 마련하고, 이를 통해서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가기에 있어서 부평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갈 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에도 목표를 둔다.

끝으로, 이 연구는 부평이 음악도시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중음악 자산들을 발굴하는 본격 연구로 나아가기 기본 방향도 제시하는 것도 목표로 삼았다.

이 연구로 부평이 음악도시로 나아가기 근거와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존에 진행된 연구를 바탕으로 문헌 고찰을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는 정유천(2012)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가 가장 앞선다. 이 보고서는 부평지역에서 풍문으로 떠돌던 음악 관련 이야기를 음악 활동을 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를 통해서 부평이 대중음악 활동 무대였던 사실을 객관화하는 첫 연구 성과였다.

그리고 한만송(2013) 『캠프마켓』은 부평에 주둔한 미군수지원사령부(애스컴) 내 음악클럽에서 연주한 한국 청년 뮤지션들이 미8군 오디션으로 결합된 것으로 담아내는 성과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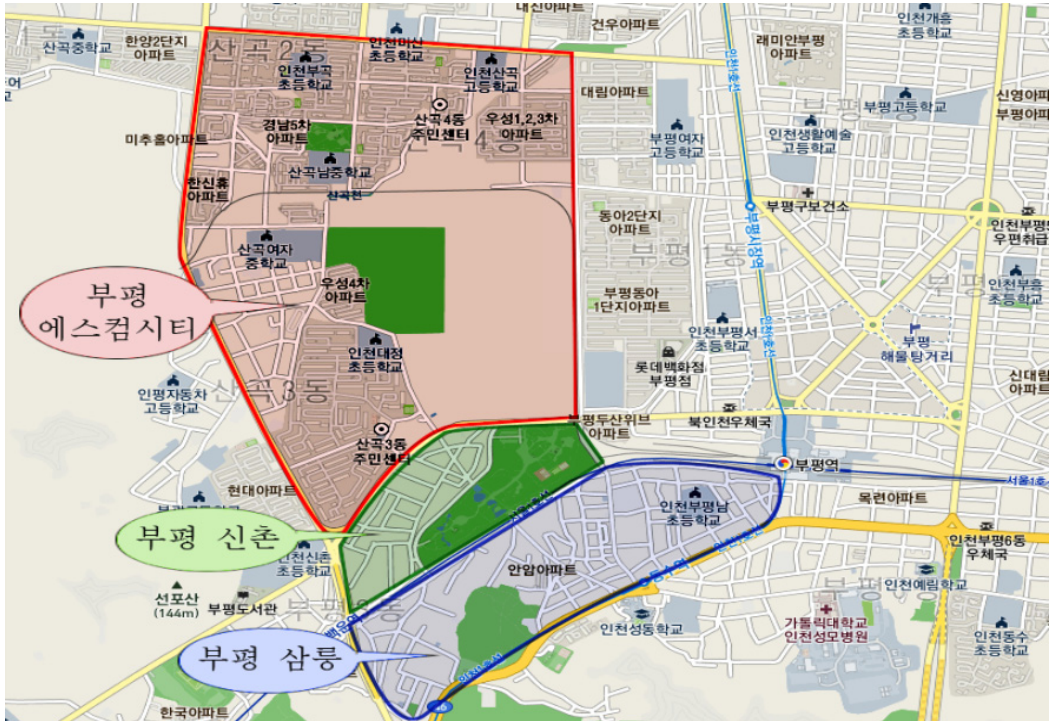
또한 김현석(2018) “부평의 길과 역사” 글은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의 변화를 실증적인 자료로 제시하여 부평에서의 미군부대의 관계성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사이에 부평 지역에서 대중음악 활동에 관련된 선행 연구 성과 및 관련 문헌 조사를 진행했다.

또한 부평 애스컴 미군기지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 거주한 뮤지션들을 찾아서 인터뷰를 통한 기본 자료를 구술하는 방식도 진행했다.

또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을 한국대중음악을 배양한 인큐베이터 공간, 장소로서 역할을 담당했음을 부평 대중음악 자산을 대중문화 관점에서 접근했다.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 와 그 주변, 음악클럽이 있었던 장소, 뮤지션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역사를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공간적 범위를 설정 하였다. 대상지는 부평 에스컴시티(행정동: 산곡1,2,3,4동, 청천2동), 부평 신촌(행정동: 부평3동), 부평 삼릉(행정동: 부평2동) 세 군데이다.



〈그림 1〉 공간 범위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가 조성된 1950년대부터 주한미군 숙소로 부평미군기지 자산들이 한국에 잔재한 미군 부대로 대거 빠져나간 1970년대 초반까지를 시간적 범위로 설정 하였다.

이 시기는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와 주변 지역에 클럽 운영이 활발했고, 활동하던 뮤지션도 부평에 많이 거주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부평이 국내 대중음악의 중심지로서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역할을 해왔는지, 부평이 가진 대중음악의 자산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음악이 도시 이미지를 나타내는 대중문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기반이 필요하다. 창작(생산), 유통(매개), 소비의 시스템이 조성되어 관계된 사람과 시장이 움직이

며, 지속적으로 문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중음악에서 중요한 소비 요소 뿐만 아니라, 생산(창작)요소와 유통(매개) 요소들을 함께 연구 범주에 두고 접근하고자 한다.

2. 부평 대중음악 기반과 자산들

1) 부평 애스컴시티 : 대중음악 소비공간

(1) 부평 애스컴시티 조성

8.15 광복 전까지 일제가 조성한 조병창은 한반도에서도 평양과 부평에 일본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군수시설기지이었다. 일제강점기 부평 조병창은 조선 최대 군수공장이었다.



<그림 2> 1952년 8월 20일 한국전쟁 당시 미8군 제79병참대대의 조감사진으로 부평 육군기지창(ASCOM)과 활주로가 보임.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1945년 9월 8일 인천항에 상륙한 미군은 인천과 서울 지역을 점령한 뒤 단계별로 남한 전역에 진주했다. 당시 인천지역 점령 책임은 미24군수지원단ASCOM24이 맡았다. 이들은 일제강점기 조병창과 군수공장 일대에 부대를 주둔시켰다. 1945년 9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이곳을 “애스컴시티”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직후 미해병대가 다시 주둔하면서 부평 애스컴시티 군수시설이 시작됐다.

일제강점기 부평에 자리한 조병창에 미군부대가 본격적으로 주둔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봄부터이다. 보급창, 의무대, 공병대, 통신대, 항공대 등의 미군 부대들이 차례로 부평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121후송병원, 55보급창, 6의무보급창, 565공병자재창, 19병기창, 4통신대, 512정비대대, 55항공대, 8057보충대, 37공병대, 8057보충대, 37보충대, 76보충대, 79병참대대 등이다.

1950년대 부평 애스컴시티는 4개의 큰 규모의 캠프마켓(Camp Market), 캠프그랜트(Camp Grant), 캠프테일러(Camp Taylor), 캠프타일러(Camp Tyler) 와 작은 규모의 3군데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 의 ‘쿼터마스터 시티(QUARTERMASTER CITY) 등으로 불리는 7개 구역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1963년 이들 구역들이 캠프 그란트 등 미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빌려와 다시 명명되었다.¹⁾

(2) 부평 애스컴시티와 부평 사람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부평에 자리 잡으면서 관계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1) 김현석(2018), “부평의 길과 역사”, 『부평의 길을 걷다』, 71쪽, 다인아트.



〈그림 3〉 부평 애스컴시티 주변의 현실을 다루고 있음.

출처: 1962년 7월 2일자 동아일보

위 신문 기사를 통해 1962년에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종사한 한국인들이 8천 여 명이 넘는 정도로 큰 규모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 달에 8천 여 명의 한국인들이 받는 돈은 3천 여 만원이고, 미군들이 매월 2만 달러를 부평 신촌과 삼릉에 뿌린다고 이 기사는 전하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미군위안부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근처 부평 삼릉과 부평 청천동 백마장에 1천 800여 명이 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띈다.

미군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서도 1960년대 후반이 되면서 조금씩 떠나기 시작했다. 미 제512·516병기부대는 1968년 해체됐고 1969년에는 제38보충대, 제337병기중대 등이 용산으로 옮겨 갔다. 비행대대는 평택으로 이전했다.

1973년에 접어들면서 부평 애스컴시티는 공식 폐쇄된다. 부평 애스컴시티 폐쇄는 부평 지역에서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었다.

1971년 121후송병원(121st Evacuation Hospital)의 서울 용산 이전이 결정되면서 시작된 부평 애스컴시티의 이전 및 폐쇄 작업은 2년 여 동안 계속됐다. 1951년 이후 30여 년간 부평지역에 자리 잡았던 부평 애스컴시티는 1973년 6월 30일 부평지역에서 공식 기능을 마치고 공식 폐쇄되었다.²⁾

부평 애스컴시티 내 부대와 시설들 대부분은 경북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Carroll)로 옮겼다. 55헌병대(55th Military Police Company), 베이커리(Bakery) 등의 일부 시설만 남아서 캠프마켓(Camp Market)으로 축소되어 운영되었다. 캠프마켓의 면적은 약 44만²m²이다. 행정구역상 부평구 산곡3동과 산곡4동에 걸쳐 있다.

부평 애스컴시티 해체로 미군부대 내에 종사하던 한국인 종사자들도 대폭 감원되어,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약 2,400여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한국인 종사자 300~400여 명 가량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부대를 따라가거나, 다른 미군 부대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았다.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는 2011년 기준으로 군인 1명, 군무원 10명, 한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민간인 30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미 육.공군 교역처 베이커리(AAFES BAKERY) 공장만 가동 중에 있다. 2011년에 창고 등 저장시설, 주한미군 군수품 재활용사무소 DRMO(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도 김천시 아포읍으로 이전했다.³⁾ 캠프마켓 베이커리도 향후 2~3년 사이에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될 예정이다.



〈그림 4〉 부평 캠프마켓 게이트. 이 문 뒤에는 베이커리 공장이 있다.(2018)

2) 김현석(2018), 앞의 글, 71쪽.

3) 김현석(2018), 앞의 글, 64쪽.

(3) 미국 대중문화 유입

부평에 미국 대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인천상륙작전으로 미 해병대는 일제가 조성한 조병창 자리에 주둔하면서이다.

그러나 미군이 한반도에 1950년대 한국전쟁 기점으로 본격 주둔하면서 엔가 리듬이 지배한 대중음악의 시대는 급속하게 저물고 미국 대중음악이 순식간에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미국의 재즈 리듬이 한국인들에게 전파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한 장소는 미8군 예하부대 부평에 주둔한 애스컴시티였다. 미8군 예하부대 가운데 한반도에 주둔한 미군기지 규모로는 애스컴시티가 최대 규모였고, 보충대가 있었기에 미국 본토에서 온 미군들은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를 꼭 거쳐 가야하는 중요한 장소였다. 그런 만큼 미군들을 위한 음악클럽을 비롯한 위락시설이 애스컴시티에 가장 많았다. 부대 안팎에 미군이 여가를 보내는 클럽이 있어 다양한 라이브 공연이 있었고, 한국의 청년 음악 연주자들이 공연을 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미국의 대중문화가 한국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청년 음악연주자들이 미8군 무대에 서는 것은 생계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새로운 장르와 리듬의 음악을 접하고 싶은 욕망도 큰 이유였다. 당시 한국의 음악연주자들이 설 무대가 거의 없었고, 매체도 부족했던 탓에 국내 음악 연주자들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미군 부대 공연은 음악연주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였다.

부평에 주둔한 미8군 애스컴시티에 존재했던 22개의 음악클럽에서 한국인 연주들로 구성된 밴드들이 공연이 이뤄지면서,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부평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미8군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미군 부대에서 파견된 쇼 관계자들의 직접 심사로 실시했던 오디션은 반드시 거쳐야 했다. 전체 쇼의 흐름과 구성, 그리고 편곡은 물론 영어까지 심사 기준은 높았다. 결과에 따라 스페셜(AA), A, B, C클래스로 등급이 매겨졌다. D는 탈락이었다.⁴⁾

3개월마다 한 번씩 엄격하게 실시되던 오디션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달랐다. ‘원쇼(One show, 1회 공연)’를 기준으로 스페셜 A는 140불, A는 120불, B는 100불, C는 80불 정도였다.

공개 오디션 현장에서 펼쳐지는 쇼의 구성이나 음악성, 테크닉 하나하나가 서로가 서로의 비교 대상이자 곧 연구 대상이었다. 동시에 다른 단장이나 마스터의 눈에 띌 수 있는 캐스팅 기회의 장이기도 했다.

4) 한만송(2013), 『캠프마켓』 205쪽, 봉구네책방.

미8군 밴드는 세 가지 그룹이 존재했다. 오디션을 통과한 전국의 미군 부대를 순회하는 ‘플로어밴드(Floor Band)’, 그리고 미8군 기지 내 특정 클럽에서 장기계약으로 연주하고 노래하는 ‘하우스밴드(House Band)’, 마지막으로 미군 부대 내 클럽이 아니라, 기지 주변 민간인이 운영하는 클럽에서 연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는 ‘오픈밴드(Open Band)’로 나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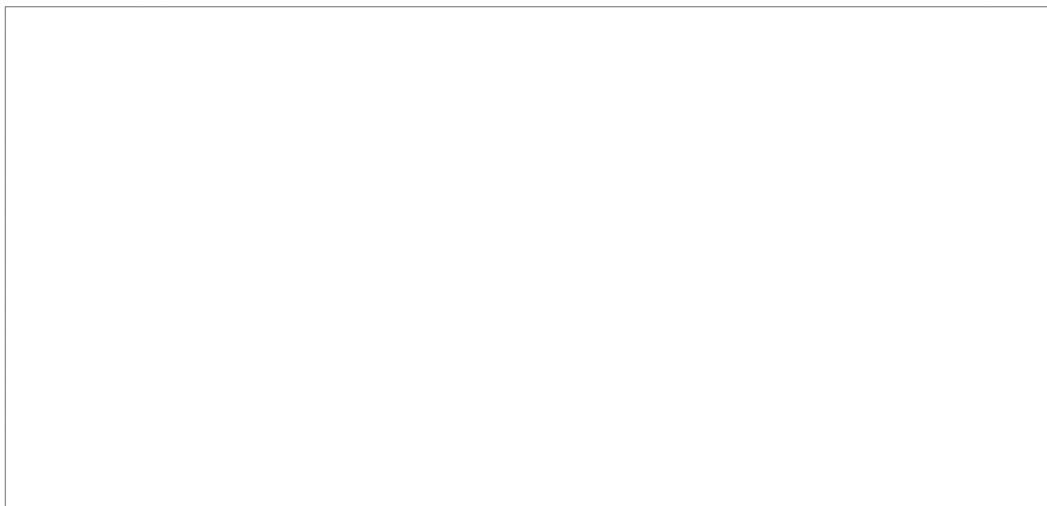
한국의 대중음악 연주자들은 미국에서 흘러들어온 리듬인 맘보, 차차차, 블루스, 모던 재즈, 컨트리, 소울, 락앤드롤 등을 악보도 없이 AFKN 라디오 방송과 LP판을 통해 습득했다. 악보가 없었던 시절이라 미국 대중음악을 들을 수 있는 AFKN(현 AFN Korea)의 ‘아메리칸 탑40’에 귀 기울였고 미군부대의 주크박스(Juke Box) 등을 통해 악보를 채보하고 멜로디를 익혔다.

미8군 미군수지원사령부 “애스컴시티”는 한반도 내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미군 기지였다. 그만큼 이 곳에서 근무하는 미군들의 숫자가 가장 많았던 곳이기에 클럽을 통해 연주자들에게 다양한 음악 활동을 할 기회가 그만큼 많았다고 할 수 있다.

(4)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현황과 특징

① 미군클럽 특징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은 크게 장교클럽(Officer's Club)과 부사관클럽(NCO club), 사병클럽(EM club) 으로 나뉜다. 클럽에서 미군 장교와 병사들이 한국인 밴드의 공연과 무희들의 춤을 보면서 여흥을 즐겼다.



〈그림 5〉 애스컴시티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 개관식 공연(1952. 5. 17)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그림 6〉 애스컴시티 미제1해병사단 부사관 클럽(NCO Club) 개관식 공연(1952. 5. 17)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그림 7〉 미1해병대원이 인천 럭키스트라이커 클럽(Lucky Strike Club)(1952. 7. 30)

출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위의 사진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설치된 영내 클럽에서는 단순한 재즈풍의 연주에 맞춰 노래만 부르고 듣는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공연(춤 공연, 댄스)들이 펼쳐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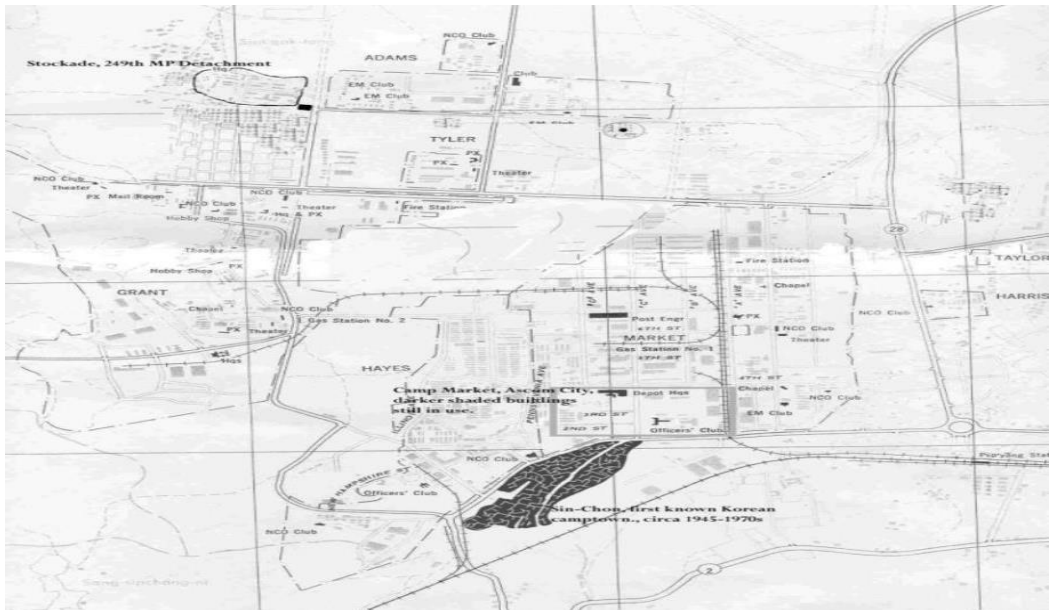
클럽별로 연주하는 음악의 장르나 연주 시간 차이는 크게 없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구획되어 있지는 않았으나, 인종별로 음악에 대한 선호도가 약간 달랐다. 백인은 폴카 종류를 좋아하고 흑인은 스윙 재즈 종류를 즐겼다. 그러나 계급별 인종별 선호도가 밴드의 레퍼토리 구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다.

② 미군클럽 현황

1951년부터 1973년까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영내 클럽 분포는 7군데 캠프별로 나뉜다. 장교클럽, 부사관클럽, 사병클럽으로 분류해서 대중음악과 관련된 자산 현황을 살펴 보았다. 한편 캠프별 극장 현황도 살펴보고 정리하였다.

부평 애스컴시티에는 4개의 큰 규모의 Camp Market, Camp Grant, Camp Taylor, Camp Tyler와 작은 규모의 3군데 Camp Adams, Camp Harris, Camp Hayes가 크고 작은 7개 캠프로 구성되어 있다.

캠프별로는 44공병대, 6의무보급창, 55항공대, 55병참부대, 76공병대, 121후송병원부대, 8057보충대, 19병기단, 37공병대, 70자동차부대, 44통신대, 74자동차부대, 565공병자재창 등이 자리하고 있다.



〈그림 8〉 1960년대 애스컴 시티 지도. / 출처 미확인.

위의 지도 자료를 근거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7개 캠프별 미군클럽과 극장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1〉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내 클럽 현황

구분	장교클럽 (officer's Club)	부사관 클럽 (NCO Club)	사병 클럽 (EM Club)	Club	극장 (theatey)
Camp Market	1	2	1		1
Camp Grant	-	4	-		4
Camp Tyler	-	-	-		1
Camp Hayes	1	2	-		-
Camp Adams	-	1	2	1	-
Camp Harris	-	1	-		-
Camp Taylor	-	-	-		-
합계 (22)	2	10	3	1	6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Camp Adams내에 Club으로만 표기된 클럽이 1개가 존재하고 있다. 이 캠프에는 부사관클럽 2개, 사병클럽 1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장교 클럽이 아닌가 하는 예측이 가능하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는 클럽 명칭이 존재했는데, 현재까지 미군클럽 명칭은 NCO, 로터리, 레오, 세븐 등만이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 미군클럽 명칭은 부대 명칭과 연 관해서 부르거나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한다. 1973년까지 클럽 수는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내 음악클럽(극장 포함)해서 22개가 존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클럽 운영 방식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오픈밴드(Open Band)는 미8군에서 권장했고, 3~6개월에 한 번 씩 오디션을 봤다. 미8군 오디션에 통과한 오픈밴드 연주자들은 미군 클럽에 부킹되면 클럽에서 주 단위 또는 한 달, 그리고 3개월 이상 연주했다.

사병 클럽과 부사관 클럽과 달리 장교 클럽은 미8군 오디션을 통과한 한국인 청년 밴드 들이 보통 공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되었다. 클럽 무대에서는 대부분 미군들이 좋아하는 스윙, 재즈, 블루스 음악을 연주했다. 노래는 전혀 부르지 않았다.

당시 클럽에서는 햄버거, 스테이크, 치킨, 면세 맥주OB와, 크라운맥주 등을 팔았다. 쉬는 시간에 휴게실에 가면 ‘송 폴리오’ 같은 팝송 악보 책이 매달 나와 한국 청년 연주인들은 미국에서 어떤 노래가 가장 인기가 많은지를 알고 연습해 선곡에 도움을 받았다.

음악클럽을 방문한 연주자들의 출연료는 일반 무대에 몇 배의 금액이었다. 당시 공무원 월급이 한 달에 3~4천 원 정도였는데, 밴드 연주자들은 일반적으로 1개월에 약 10회를 연주하고, 공무원의 30배에 가까운 금액인 대략 9만원을 받았다. 출연료는 클럽의 미군 매니저가 미군 부대에서 수표를 받아 현찰로 주거나, 출연자들이 원할 경우엔 군납 물건으로 바꿔서 주었다.

2) 부평 신촌: 대중음악 유통 공간

(1) 부평 신촌 조성 배경

부평 신촌(新村)은 일제강점기 조병창, 광복과 6·25전쟁 이후의 미군 정착 등 주변의 군사적, 경제적 요인 등에 의해 형성된 마을이다. 한때는 일제강점기에 지은 조병창 사택도 부평 신촌 한 부분을 차지했다.

조병창에 근무하면 징병과 징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전국의 젊은이들이 모여들어 부평 신촌에 정착했다.



〈그림 9〉 부평 신촌 앞 2018년 부평 애스컴시티 게이트 1 정문. 현재는 철조망 뒤로 담벼락을 설치해 놓아 미군부대 안쪽으로 볼 수 없다.(2018)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게이트1(GATE 1) 정문 맞은편에 위치해 미군부대에 인접해 미군의 출입이 빈번한 지역이다. 미군을 상대로 한 클럽 등 유흥업소가 생기게 되었고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도 모였다. 술을 파는 클럽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고, 1960년대 중반부터이다.



〈그림 10〉 1960년대 부평 신촌 일대 골목.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부평 신촌에 미군 상대 클럽들이 생기게 된 이유는 미군들의 여흥을 일과 뒤에 부대 안에서만 해소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부대 안의 음악클럽에서는 일상적인 이탈이 제한되었기에 일과 시간이 끝난 미군들이 부평 신촌에 마련된 클럽들을 많이 이용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미군부대 근로자로 종사하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부대를 통해 다양한 미군 물품과 한국에는 없었던 제품들을 구해 판매하기도 했다. 라디오, 음반 등으로 미국의 대중문화를 경험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다양한 음악장르의 유입이 가능했다.

1973년 미군 감축이 본격 이루어지며 7개 캠프로 구성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는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만 남게 될 때까지 부평지역 경제를 지탱해주는 핵심 기반이었다.

연번	위치	상호	무대유무	비고
1	부평 신촌	아리랑클럽	있음	규모가 가장 컸고 연주자를 불러 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8군출입 밴드였던 스타더스트 밴드의 드러머 박헌오(남, 1942년생)의 기억에 삼릉의 경찰악대 연주자가 일과 후 개인적으로 아르바이트 삼아 저녁에 아리랑클럽에서 연주하는 일이 있었다. 아리랑클럽이 신촌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좋은 클럽이었지만, 미군 부대 내의 클럽과는 견주기 어려웠다.
2	부평 신촌	드림보트클럽	있음	백인전용클럽으로서 무대 공간 없고, 도너츠 판과 LP를 들어주는 클럽이다. 현재는 부일정육점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건물 형태와 내부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다.
3	부평 신촌	세븐클럽	있음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클럽이다.
4	부평 신촌	키클럽	없음	백인선호 컨트리 음악을 연주한 클럽이다.
5	부평 신촌	화이트로즈 (송도홀)	없음	차영수씨가 운영한 화이트로즈는 백인 군인 전용클럽이며 밴드 연주가 가능한 곳이었다. 1968년에 결성한 화이트 로즈 밴드가 활동했다. 밴드 멤버는 기타 정창교, 드럼 김영진, 베이스 차종현, 보컬 이인기 5인조 라인업이었다.
6	부평 신촌	홍콩홀	없음	1950년대 후반에 문을 연 미군전용클럽이다. 클럽에서는 전축과 주크박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들었다고 한다.
7	부평 신촌	서브달러클럽	없음	흑인선호 흑인 전용 클럽
8	부평 신촌	플레이보이 컨츄리 (뉴컨츄리클럽)	없음	백인 전용 클럽
9	부평 신촌	브라더 클럽	미확인	새로 발견(키클럽 맞은편)
10	부평역 근처	아폴로클럽	있음	아폴로클럽은 1969년 12월 처음 오픈했다. 미군을 상대로 한 외국인 전용클럽이었다. 한국인도 암묵적으로 클럽을 드나들었다. 아폴로 클럽은 양조장 자리였다. 건물을 그대로 둔 채 일부를 리모델링해서 외국인 전용 클럽으로 고쳤다. 1980년대 후반까지 한국인들이 드나드는 클럽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1990년대 문을 닫았다.
11	부평 삼릉	유니벌서클럽	있음	부평 삼릉에 위치한 미군장교들이 자주 찾는 클럽이다. 부평에 있던 공수부대 장성들도 자주 방문했다. 클

연번	위치	상호	무대유무	비고
				럽의 공간은 둘로 구분되어 있었다. 미군 장교들은 차량을 이용해 이곳에 왔다. 바로 부평 신촌에 자리한 클럽이 많아서 미군들이 부평 삼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드물었다. 유니버설 클럽에서 영화를 촬영하기도 했다. 이대엽, 남보원 등이 출연한 고영남 감독의 '공수특공 대작전'이란 영화다. 잠시 스치듯 등장하긴 했지만 클럽 내부가 영화에 고스란히 소개됐다. 유니버설클럽은 1980년 중반까지 운영되다가 문을 닫았다.
12	부평 삼릉	원더클럽	없음	부평 삼릉에 있던 클럽인데, 규모는 아주 작았다. 현재 정확한 위치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13	부평 청천동	로타리클럽	없음	부평 청천동에 있었던 클럽이다. 1970년대초 부평 애스컴시티 철수에 따라서 문을 닫았다.
14	부평 신촌	맘보홀	없음	흑인선호
15	부평 신촌	그린도어클럽	없음	
16	부평 신촌	신일홀	없음	
17	부평 신촌	신정홀	없음	
18	부평 신촌	신세계클럽	없음	
19	부평 신촌	수도클럽	없음	
20	부평 신촌	평양홀(뉴옥홀)	없음	
21	부평 신촌	부산홀	없음	
22	부평 신촌	하니문클럽	없음	

위와 같이 부평 신촌을 중심으로 22개 미군전용클럽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영외 미군클럽은 한국에 미국 대중음악을 소개하고, 유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표 2> 부평 신촌을 중심으로 작성한 미군전용클럽 현황⁵⁾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던 시절 클럽은 실시간으로 미국에서 유행하는 대중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3) 대중음악 매개지로서 부평 신촌

□ 이른바 '미군 위안부' - 대중음악 매개자

1945년 말 부평 신촌 주변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이른바 기지촌이 들어섰다. 그리고 한국

5) 부평역사박물관 “신촌 바로보기”을 바탕으로 재구성.

전쟁기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부평에 본격적으로 조성되면서 부평 신촌도 조성됐다.

1955년 미군 부대가 주둔하던 부평에 이른바 미군 위안부가 다수 거주해 무면허 의사가 몰려들었고, 부대 인근 산곡동, 부평2동(삼릉), 부평3동(신촌) 일대에 ‘미군 위안부’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미장원이 성업했다.



〈그림 12〉 1960년대 말 부평 신촌에 자리한 성병 검사소에 이른바 미군위안부들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또한 1962년 부평 신촌 일대 미군전용클럽은 현재까지 파악된 클럽만 22개소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부평 신촌 이른바 ‘클럽거리’는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로 조성 이후 195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해 1960년대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 뒤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로 축소되었던 1970년대 중반까지, 곧 1960~70년대 중반 시기는 부평 신촌 클럽거리 전성기였다.

부평 신촌에 거주했던 미군 위안부들은 미국 대중문화를 누구보다도 쉽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부평 신촌의 미군 위안부들은 미군들의 여가를 돕는 역할도 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 대중문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숨기고 싶은 역사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어 그들을 통해 전달된 미국 대중문화의 역사적 흐름을 연구한 시도가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다.

향후 새로운 시각의 해석과 접근을 통해 미군위안부는 단지 시대의 아픔이 아니라, 미국 대중음악 소비자였고, 중요한 매개자 역할의 인적 자원으로 한국 대중음악사 연구에서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 대중문화 집산지 - 라디오, 극장, 뽕판

부평 신촌은 대중음악이 한국민들에게도 유통되는 공간으로서 자리 잡는 조건을 갖춘 장소였다.

아울러 미국 대중음악을 다른 지역에 비해 쉽게 접할 수 있는 미디어(라디오) 보급률이 높았다.

〈표 3〉 트랜지스터 라디오 보급 현황 1961년.

구분	댓 수
전 국	81,626
서 울	21,451
경기도	14,077
충 북	2,081
충 남	6,303
전 북	6,977
경 북	7,691
경 남	12,364
강원도	3,537
제주도	873

주: 한국통계연감(통계청)

1961년의 우리나라 라디오(트랜지스터) 보급 댓수는 경기(당시 인천은 경기도에 포함)가 서울 다음으로 많이 보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평 신촌과 부평 삼릉, 부평 청천동 일대의 라디오 보급률 높음은 결국 미8군이 개국한 AFKN(American Forces Korea Network)방송을 청취하는 부평의 사람들이 여타지역에 비해 많았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AFKN은 1950년 10월 4일 라디오 방송으로 개국(반도호텔 설치. 출력5Kw, 주파수 560Khz)한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주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서는 AFKN 라디오 방송에서 편성프로그램 ‘Americsan Top 40’과 같은 음악 방송을 쉽게 수시로 들을 수 있었던 여건이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에 거주하는 미군들뿐만 아니라, 라디오를 소지한 한국민들도 청취할 수 있었다.

1956년 10월 집계에 따르면, 인천시의 라디오 보유 대수는 6,037대였다. 그중 부평지역에만 1,010대가 있었다. 부평2·3동·십정2동의 보유 대수는 95대였고 총 호수 1,632호를 기준으로 대비할 때 5.8%의 보유 현황을 보였다.

〈표 4〉 1956년 부평지역 라디오 보유 현황. 주: 『대중일보』, 1956년 10월 26일자

동명	총대수	전기식	전지식	전기전지겸용	전체 호수
부평2·3·십정2	95	56	21	18	1632
부평1	291	291	0	0	2185
산곡청천	515	315	50	150	1351
부개일신구산	54	45	6	3	486
삼산갈산	55	55	0	0	412
총계	1,010	762	77	171	6,066



〈그림 13〉 1960년대 부평 신촌 전파사.

출처: 인천 부평 애스컴시티에 복무하던 주한 미군 병사 Wayne Algood이 촬영한 사진

인천지역 라디오 보급 댓수 자료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 특히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인근 마을에 라디오 보급이 눈에 띄게 많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부평 신촌과 삼릉에는 라디오를 수리하는 전파사들이 유독 많았던 것이 이 때문으로 파악된다. 부평 신촌의 라디오 보급률이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인접한 특수한 상황에서 연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라디오를 통해서 AFKN에서 나오는 미국 대중음악을 부평 신촌에서는 쉽게 누구나 늘 들었던 곳이다.

대중음악의 확산에는 첫째로 민간 라디오 방송국(이른바 ‘민방’)의 등장과 KBS-TV의 탄생이 있다. 이제까지 ‘KBS 라디오’ 하나밖에 없던 상황에서 라디오가 다채널화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TV 방송이 시작되어 시각적 요인이 중요해진 것이다.

방송산업의 확장은 ‘연예인’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낳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61년 문화방송, 1963년 동아방송, 1964년 동양방송이 개국하고, 1964년 동양방송, 1969년 문화방송이 TV 개국을 하게 된다.

둘째는 LP 레코드의 등장이다. 1956년 10인치 LP가 SP(standard play)를 대체한 데 이어 1962년에는 12인치 LP가 10인치 LP를 대체하게 된다.

당시의 LP는 아직 모노(mono)였지만 그 이전의 SP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음질을 가지고 있었고, ‘신상품’의 도입으로 음반 산업은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

부평 신촌에는 레코드 백판 가게가 2군데 있었다. 그린도어클럽 뒷골목에 백판 가게가 있었다고 전하고 있다. 당시 서울 청계천에도 없는 ‘백판’을 부평에서는 구할 수 있었다.

또 하나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음악공연을 할 수 있었던 장소로 주목해야 할 곳은 ‘부평극장’이다. 1943년 말 경 부평영화극장이 등장했다. 부평영화극장은 뉴스 등을 매일 상영하거나 간담회, 집회 장소로 사용됐다.

부평극장에서는 음악 콩쿠르 대회가 열리기도 했고, 가수 현미가 소속된 ‘현시스터즈’가 공연한 극장이 부평 신촌과 삼릉 사이에 있었다.

2. 부평 삼릉: 대중음악 창작 레지던스 공간

1) 부평 삼릉 조성

삼릉은 ‘삼릉 사택’의 준말이다. ‘삼릉’을 한자로 쓰면 ‘三菱’이다. ‘세 개의 마름모’란 뜻이다. ‘삼릉(三菱)’은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의 회사 이름이자 ‘쓰리 다이아 마크(スリーダイヤ・マーク)’라고도 부르는 회사 문양의 명칭이다.

일본 기업의 이름이 마을을 가리키는 지명으로 정착했다. 예전 사람들은 부평 삼릉을 JV(japan village)로 불렀던 이유다.⁶⁾



〈그림 14〉 부평 삼릉 줄사택 전경(2016년)

부평 삼릉을 부평2동의 특정 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기 시작한 건 1942년 이후다.

1942년 미쓰비시중공업(주)은 경영난에 허덕이던 히로나카상공(弘中商工) 부평공장을 인수했다. 히로나카상공은 1937년부터 부평역 인근에 대규모 기계공장 건설을 추진했고 주변에 사택을 조성했다.

공장 자리는 광복 후 미군 부대가 자리를 잡았다가 한국군 부대를 거쳐 지금은 부평공원으로 개방됐다.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의 산실로서 새롭게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밴드 연주

6) 정유천(2013),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18쪽,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자들이 부평 삼릉에 전국에서 모여 들었기 때문이다.

부평 대중음악을 이야기할 때,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미군클럽들, 부평 신촌의 미군 전용클럽들이 주로 언급됐다. 부평지역이 한국대중음악사에 큰 획을 긋을 수 있었던 동력은 바로 부평 삼릉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부평 삼릉은 밴드 연주자들이 머물면서 기거했던 대중음악연주자들의 레지던스 역할을 담당했기에 부평이 한국대중음악사에서 20여 동안 중심에 서 있었던 것이 가능했던 핵심 범주다.

부평 삼릉에 밴드 연주자들이 모여든 이유는 미8군 무대에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거나 출연 기회를 얻기 위해서다.

부평 삼릉에는 미8군 무대에 선 경험이 있는 연주자들과 지속적으로 밴드 연주를 맡아서 진행하는 연주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살고 있었고, 당시 최신 미국 대중음악의 정보를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서부터 취득하기 쉬운 장소이기에 가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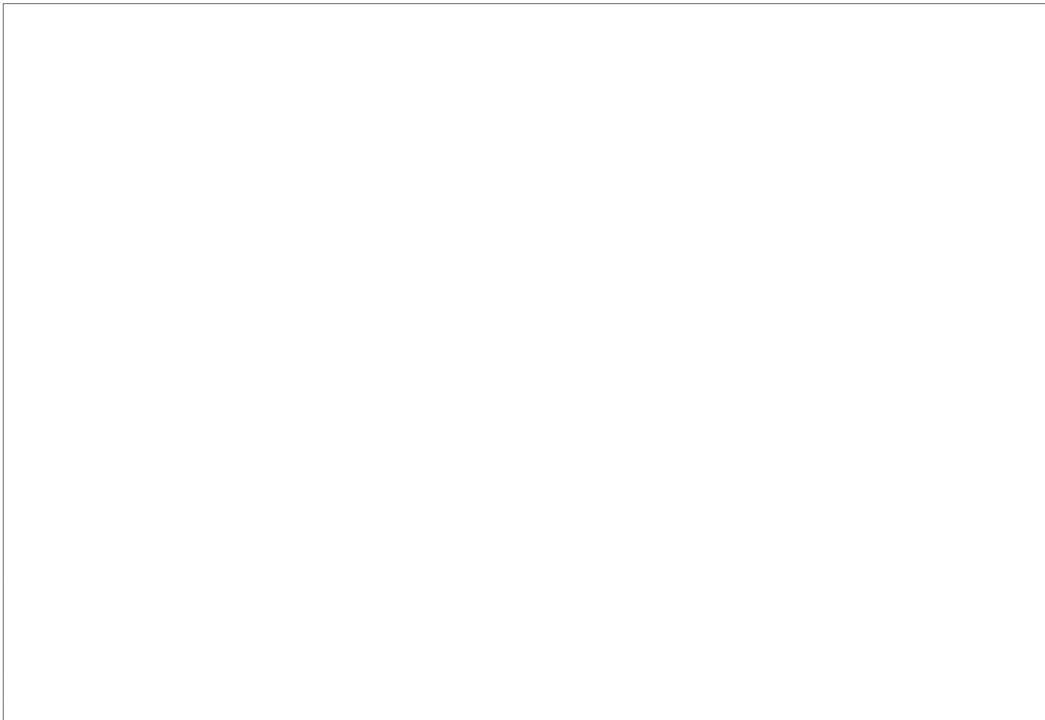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가 조성되고 난 뒤, 부평 삼릉은 미군 부대 영내 클럽에서 음악 공연을 하는 연주자들이 거주하면서 연주 연습을 하던 연주자들의 창작 레지던스 장소로 변모했다.



〈그림 15〉 부평 삼릉에 아직 남아 있는 옛 집들(2018년)

부평 삼릉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서 멀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부평 삼릉(미쓰비시) 즐사택들이 오밀조밀하게 존재하고 있어 청년 뮤지션들이 값싸게 거주할 수 있는 장소였다.

부평 신촌에도 영외 미군전용클럽들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대부분 LP판을 이용하는 장소이기에 연주자들이 신촌 영외 클럽에서는 연주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 16〉 부평 삼릉에 거주하던 대중음악 연주자들을 미군 클럽으로 실어 나르기 위해 미군 트럭이 대기했던 자리로 현재는 동수역 3번 출구.(2018년)

부평 삼릉이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대부분이 거주하게 된 이유는 미8군에 소속 미군부대에 오전마다 전속 계약을 맺은 연주들을 픽업트럭에 태워서 각 부대로 이동시키는 정거장, 당시 삼부약국 앞(현재 동수역 3번 출구 자리)이 삼릉에 자리 잡고 있었기에 때문이다.

2) 부평 삼릉 연주자 현황

부평 삼릉에는 가수보다는 연주자들이 모여 살았다. 그 이유는 부평 삼릉에서 경기도 의정부와 오산 지역 등 미군 부대 내 클럽들에 악단이 연주하러 이동할 수 있도록 차량을 탑승하는 위치였다.

부평 삼릉에서 연주자들을 실어 나르는 미군트럭(GMC)차량에는 7~9명으로 구성된 악단이 탑승했다. 부평 삼릉 당구장 앞에는 미군이 직접 연주들을 실어 나르는 미니버스와 트럭들이 줄을 섰다. 부평 삼릉에서는 평택, 파주 주둔 미군 클럽까지 매일 연주자들을 실어 날랐다.⁷⁾

통행 금지가 있던 시대였고, 또 대중교통의 발달이 미흡했던 터라 미군들이 악단의 수송지역이었던 부평 삼릉에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다. 또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는 미8군 무대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컸기 때문에, 연주 잘하는 사람들이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음악 생활을 이어갔다.

아래는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와 부평 신촌, 부평 삼릉 등에서 활동한 대중음악과 관련된 연주자와 가수들을 목록화해 보았다. 기간은 1950년대부터 1970년대 초까지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된 내용으로 설정했다.

〈표 5〉 1960~1970년대 부평 삼릉 거주 또는 활동한 대중음악가⁸⁾

밴드명 / 연주자	갈 래	내 용	비 고
차차차 오남매	부평 어린이 패밀리 밴드	-1958년 오누이와 사촌 남매 결성 -꼬마 드러머(부평 올리브요양병원 차경수 원장) -1958년 용산 미군기지에서 C등급 받음	
김윤옥(1922~)	연주자	-전북 진안 출신 -미군 8군 최초 국내 밴드 〈토미스 밴드〉 멤버	
이관섭(1934~2017)	연주자/트론본	-인천 동구 화수동 출신 -송현국, 인천상업학교 -육군본부 국악대 -부평 애스컴시티 121부대 클럽 -8인조 스윙밴드 뉴킴, 록엔비트에서 활동	
토미스밴드	스윙재즈	-1950년 9월 결성	
록엔비트	밴드/스윙재즈	-8사단 군악대 출신 강대영	
뉴킴	밴드/스윙재즈	-색소폰 연주자 이관섭 주도	
힐탑	밴드/스윙재즈	-피아니스트 오윤성 운영	

7) 정유천(2013), 앞의 책, 22쪽,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8) 부평역사박물관 “신촌 바로보기”와 정유천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글을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자가 추가하고 보완함.

밴드명 / 연주자	갈 래	내 용	비 고
새미	밴드/스윙재즈		
스타라이	밴드	-경찰악대 출신 유모 운영	
탑팻	밴드	-유선준 운영	
부평경찰학교 악대	군악대	-악대 멤버들이 일과 시간 이후에 부평 애스컴시티 밴드 연주자로 활동	
한명숙	가수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노란 샤쓰의 사나이(1961, 비너스레코드사)”	
김시스터즈	가수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리나박	가수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최선미	가수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패터김	가수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미스K	가수	-부평 애스컴시티 클럽	
배 호	가수	- 부평 삼릉에서 2년간 거주하면서 드러머로서 밴드 활동 - ‘돌아가는 삼각지(1967, 아시아레코드)	
박현호	연주자	-1942년생, 드러머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클럽에서 연주(드러머)	
차영수	트럼펫/드럼	-1944년 서울 생 -더 트라바달스 밴드 결성 -부평 애스컴에서 활동 -신촌에서 화이트 로즈 운영	
김홍탁	기타	-1944년 5월 13일 인천에서 남 -동산중, 미8군 부평 애스컴에서 클럽 활동 -1963년 록밴드 키보이스, 히파이브, 히식스 활동	
임종임	기타 가수	-1944년 인천에 남 -부평 애스컴에서 활동 -1968년 인천출신 여성들로 구성된 걸밴드 '레이드 버즈;	
이길례	기타 가수	-걸밴드 레이드 버즈 초대 리드보컬 -1970년대 걸시스터즈(도토리 자매) 활동	
김삼순	드러머	-1948년 부평 출생 -걸 밴드 '레이디 버즈' 멤버	
김대환	타악기 연주자	-1933년 생 -호적에는 '강대환'(본디이름) -1960년대초 신중현과 ADD4 결성 -1978년 국내최초 프리재즈밴드“강태환 트리오”	
이근수	드러머		
최현배	트럼펫	애스컴시티 클럽 연주자	
김진호	밴드 마스터		
구철성	연주자		
강오식	색소폰	-유니버설 클럽 밴드 마스터	

밴드명 / 연주자	갈 래	내 용	비 고
임명철	알토색소폰		
이진동	기타리스트	-부평 신촌에서 거주 -고만석악단 일원으로 애스컴에서 활동 -밴드 라이더스, 하파이브 기타리스트	
최영훈	트럼펫	-1966년 미8군 오디션 통과 후 부평 애스컴 클럽에서 연주	
트로바더스	밴드	-차영수가 운영한 6인조 밴드 -부평 신촌 화이트 로즈 클럽에서 연주	
리틀캐츠	7인조 밴드	-베이스 김병관(1952년생), 퍼스트 기타 박정희(1953년생), 보컬 루루자매 김승희(1953년생), 김승미(1955년생), 세컨드 기타 백영석(1955년생), 드럼 정차우언(1955년생), 리드보컬 정현수(1958년생)	공연 포스터 존재
탑 스텝스	밴드	-드러머 안기승(1957년생), 아버지는 육군 군악대 출신. -1964년 결성 -유니버설 전속	
데블스 (Devils)	밴드	-1970년대 결성, 김명길(부평 삼릉 거주)	
에인젤스	밴드	-1970년대 결성, 연석원(부평 삼릉거주)	
Happy Time	밴드	-유수봉 리더, 부평 삼릉 거주	
TOPHAT	밴드	-유선준	
STAR DUST	밴드	-김진해, 박현호(드럼)	
STAR LIKE	밴드	-고만석 경찰악대 출신	

이 밖에도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밴드활동을 한 연주자들은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

특히 부평 대중음악과 관련해서 가수 배호(1942~1971)⁹⁾가 1951년 부평 애스컴시티 미

9) 배호[1942~1971]는 본명은 배신웅(裵信雄), 호적상 이름은 배만금. 예명이 배호(裵湖)이다. 아버지는 광복군 출신의 배국민이고, 어머니는 김금순(金錦順)이다. 여동생은 배명신(裵明信)이다. 외가 쪽이 음악가 집안으로, 둘째 외삼촌 김광옥은 일본 무사시노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윤이상과 함께 음악 활동을 하였으며, 북경심포니교향악단 지휘자를 역임하였다. 셋째 외삼촌 김광수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의 작곡자로, 일본 메이지대학 문예과를 졸업하고, 바이올린 연주자로 초기 KBS 악단장을 지냈다. 넷째 외삼촌 김광빈은 피아노와 아코디언 연주자로, 초기 MBC 악단장을 지냈다. 배호는 중국 산둥성 지난(濟南)에서 태어나 광복 직후에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돌아와 1946년 4월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창신동 81번지[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신동]에서 생활하였다. 1949년부터 1955년까지 서울 창신국민학교를 다녔다. 6·25 전쟁 때는 부산으로 피란을 가기도 하였다. 1955년 서울 영창학교 [성동중학교 전신]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부산으로 내려가 이모의 모자원에서 생활하면서 1956년 부산 삼성중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쳤다. 이후 음악을 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올라와 외삼촌 김광빈에게 드럼을 배웠다. 1958년부터 김광빈 악단, 김인배 악단 등에서 드럼을 연주하였고, 1960년 부평 미군부대 캠프 마켓(Camp Market) 관할 클럽 등에서 2년간 악단 생활을 하면서 본격적인 음악 활동을 하였다. 1963년 21세 때 「굿바이」와 「사랑의 화살」 두 곡을 녹음하고, 예명을 배호로 지었다. - 출처: 디지털양주문화대전

http://yangju.grandculture.net/Contents?local=yangju&dataType=01&contents_id=GC0430

군기지 안에 있었던 서비스클럽에서 드러머로 활동한 사실을 당시 배호와 함께 부평 삼거리 근처 기거한 박현호 연주자로부터 확인했다.

박현호(1942년생) 연주자(드러머)는 배호를 1951년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내 ‘서비스클럽’에서 처음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나이로는 16세에서 17세로 자기와 거의 비슷한 또래로 드럼 치는 법을 배호에게 직접 배웠다고 말했다.



〈그림 17〉 가수 배호가 1961년에 거주한 집 위치(현재 부평 삼거리 역 근처)

박현호 연주자에 따르면 1951년 배호는 현재 부평 삼거리역 근처 여러 세대가 사는 집에 어머니와 여동생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고 한다. 밴드 연주자들이 원래 픽업 장소는 부평 삼거리 근처였다.



〈그림 18〉 1961년대 초반 미8군 픽업 장소(2018년 부평 삼거리)

1950년대 중후반에 와서 현재 부평 삼릉 동수역 3번 출구로 이전한 사실도 증언해 주었다. 1951년 무렵 부평 삼거리에 거주한 연주자들은 미군이 제공한 GMC 군용트럭(지붕 없음)을 타고 미군기지 클럽으로 연주를 다녔다는 사실을 새롭게 확인하게 되었다.

3) 부평 삼릉 거주 연주자 생활

195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부평 삼릉(현재 부평2동)에는 미8군 소속 밴드로 연주하려 가는 뮤지션들이 대략 300여 명이 살고 있었다.¹⁰⁾

부평 삼릉 거주 연주자들은 거주지에서 술도 함께 마시고 낮엔 부평 삼릉 거주지 마당에 나와 연주 연습을 밴드별로 주로 함께 했다. 부평 삼릉에는 뮤지션들이 따로 마련된 연습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10) 박현호 연주자는 1951년 무렵에는 뮤지션 픽업장소가 부평 삼거리 쪽에 있었다가, 1950년대 중후반 부평 에스컴시티 미군기지가 안정화되면서 현재 동수역 3번 출구로 픽업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증언하였다. 2018.10.30.)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22개, 부평 신촌에 21개의 클럽이 있었기 때문에 부평 삼릉은 밤 부대를 나갔다 들어온 연주자들이 낮시간을 이용해서 악기를 연주하는 풍경을 쉽게 목격할 정도이며 일상이었다.

부평 삼릉에 거주하는 연주자들은 전국을 무대로 다녔다. 1960년대 부평 삼릉의 하숙비는 당시 금액으로 1천 백 원 안팎이었다.

미8군클럽에서 주당 지불되는 넉넉한 출연료로 1960년대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뮤지션(연주자)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거주하면서 연주 연습을 지속할 수 있는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서 역할을 담당했다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부평 삼릉은 전국에서 모여든 한국 청년 뮤지션(연주자)들이 거주하는 공간이기에 새로운 음악의 정보 공유하고, 자연스럽게 공동 연습도 한 창작 공간으로서 자연스럽게 자리매김하였다.



〈그림 19〉 부평 삼릉 즐사택 전경(2018년)

또한, 부평 삼릉에는 뮤지션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서, 연주자들의 이른바 ‘부킹’을 하는 장소로 유명했다. 부킹은 뮤지션들이 음악클럽에 나갈 연주할 기회를 얻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부평 삼릉에는 악기를 팔거나 수리하는 ‘소리사’들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상점들은 일종의 기획사 역할을 담당했다.

부평 삼릉에는 ‘소리사’와 ‘고향사’가 있었다. 현재 ‘경인국도’에서 ‘부영로’로 들어서는 초입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서도 악기를 수리하거나 악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부평 삼릉에 악기와 음향을 수리하는 곳에 많았던 이유는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를 중심으로 미군클럽에 가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대거 몰려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악기를 수리하고 음향 기계를 수리하한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기타와 베이스기타용으로 만든 최초의 진공관 앰프(상표명:20SEGI)를 서울 용산 근처로 이전해서 만들었다.¹¹⁾



〈그림 20〉 20SEGI진공관 앰프(기타와 베이스기타용)

*사진 제공: 정유천 대표(인천밴드연합)

따라서, 향후 부평 대중음악연구에서 부평 삼릉 주변에 형성되었던 악기와 음향 수리사에 대한 현황과 흔적들을 조사하고 기록을 남기는 일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부평 삼릉에 거주하는 뮤지션들은 인천은 물론 서울, 경기도까지 연주할 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악기를 들고 떠났다.

부평 삼릉은 뮤지션들이 300 여명이 집단적으로 거주한 동네였던 이유로 당시 부평 삼릉을 ‘대중음악인 마을’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11) 박현호, 차영수 연주자들은 부평 삼릉에서 악기와 음향 기계를 수리하는 사람, 우리나라 최초의 진공관 앰프를 만든 이십세기 앰프사 사장이라고 증언했다(2018.10. 30)

4) 부평 삼릉 대중음악 활용방안

현재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에게 값싼 거주환경을 제공해 준 줄사택 등이 부분 철거와 함께 재개발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곳이다.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뮤지션(연주자)들의 한반도에서 유일한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한반도에서 유일한 역사성을 지닌 장소로 그 가치를 매겨야 한다.

부평 삼릉은 미국의 최신 대중음악의 흐름과 정보를 공유한 음악인 마을이었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 연습을 한 장소라는 점도 확인하게 된다.

부평 삼릉은 미군 부대 내 클럽으로 가는 연주자들이 집합하는 음악 정류장 역할도 담당했던 곳이다.

부평 삼릉은 악기와 앰프 라디오를 수리 점검하는 전파사가 연주자들의 기획사 역할을 담당하는 등 대중음악이 존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을 갖춘 장소였다는 점도 부평 대중음악 자산으로 살펴볼 요소로 여겨진다.

이런 역사성을 기반으로 삼아 부평 삼릉을 대중음악 창작 레지던스 공간으로 재구축해서 현재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부평 삼릉은 부평지역을 넘어서 한국 대중음악사에 중요한 거점으로서 많은 대중음악 연주자들이 거주한 공간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닌 장소이므로 부평 대중음악과 한국 대중음악을 널리 알리는 이른바 ‘부평 대중음악사전시관’ 설립 장소로 최적 장소로 여겨지게 이 활용 방안도 제시한다.

3. 결 론

1) 연구 요약

(1) 부평 애스컴시티 - 대중음악 소비 공간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는 대중음악의 소비 공간으로서 특화하고,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존재한 대중음악을 소비할 수 있었던 22개 클럽들의 정확한 위치와 명칭을 고증한 뒤, 그 장소에 대중음악 관련한 표지판을 설치하는 방안이다.

미국 대중음악이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 내 클럽에서 전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을 마련하면서, 이 표지판을 연결해서 가칭 ‘부평대중음악둘레길’을 조성한다면

대중음악 관광객들을 유입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서 현재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를 세계적인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는 한반도 내에서 가장 큰 규모였고, 그곳을 거쳐 간 미군들도 가장 많았던 미군기지였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인 대중음악 밴드를 매년 초청해서, 현재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부지를 대중음악 공연장으로 활용해서 공연한다면 부평을 세계에 널리 알려낼 수 있기에 제안한다.

(2) 부평 신촌 - 대중음악 유통 공간

부평 신촌은 한국적 대중음악이 유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미국의 대중음악이 유통되는 장소로서 기여한 점이 특징적이다.

부평 신촌은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와 더불어 22개 미군전용클럽이 밀집해서 운영된 장소라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점이며, 이를 부평 음악도시로서 나아가는 역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부평 신촌에 자리했던 클럽 자리에 클럽 명칭과 연혁 등을 넣은 표지판을 설치해 부평 대중음악의 유통 장소로서 가칭 ‘부평 신촌 음악클럽길’을 구축하고 “음악클럽”유치도 제안한다.

아울러 부평 신촌의 이른바 미군위안부가 미군전용클럽에 자유자재로 드나들면서 미국 대중음악을 맨 먼저 수용하고 전파하는데 중요한 매개자 역할을 담당했던 부평 대중음악 자산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한다.

부평 신촌은 미국 대중문화를 가장 빠르게 수용하고 전파한 장소라는 역사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부평 신촌을 대중문화 유통 공간으로서 콘텐츠를 발굴해서 활용해야 한다.

(3) 부평 삼릉 - 대중음악 창작 레지던스 공간

부평 삼릉은 대중음악 한국 청년 뮤지션(연주자)들의 창작 레지던스 역할을 20여 년 동안 담당했던 한국대중음악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해야 할 공간이다.

따라서 부평 삼릉이 한국 대중음악사에서 담당했던 역사 문화적 특성을 적극 알려내고 이를 다시 재조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부평 삼릉은 ‘공간의 재구축’, ‘대중음악 확산을 위한 제도 마련’, ‘대중음악의 콘텐츠 구축’ 등이 뒤따라야 한다. 부평 삼릉을 음악 빌리지(Music village)로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부평 삼릉을 음악빌리지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부평 삼릉이 대중음악의 연주자들이 거주한 장소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하여, 미래의 음악 세대들에게 창작 레지던스 공간을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150년대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 부평 삼릉에서 거주한 연주자들의 집을 새롭게 발굴해서 레지던스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한다.

현재 부평 삼릉에서 진행 중에 있는 새뜰 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 가운데 공공적인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여건을 파악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 주민센터의 한쪽 공간을 마련해서 가칭 ‘부평 대중음악전시관(박물관)’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대중음악의 중심지였던 부평 애스컴시티, 부평 신촌, 부평 삼릉의 대중음악 자산들을 ‘부평 대중음악전시관(박물관)’에 전시하고 아울러 부평 대중음악자산을 연구 조사하는 기구 설치도 포함시키는 방안도 제시한다.

2) 향후 과제

부평 대중음악사 연구 향후 과제는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대한 세밀한 접근, 곧 내부 공간에 대한 세밀한 자료 찾기와 고증이다.

아울러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주둔한 부대 명칭과 부대 위치, 부대 규모, 취급한 군수물자, 미군 부대 숫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덧붙여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서 근무한 한국인 노무자들의 역할 등에 대한 생활사적 측면 연구도 부평 음악도시로 나아갈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이기에 시급하게 후속 연구가 이뤄지는 것이 필요하다.

부평 신촌 대중음악자산 조사 연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평 신촌 미군전용클럽에 대한 정확한 전수 조사와 함께 당시 부평 애스컴시티 미군기지에 근무했던 미군들의 부평 신촌 클럽에 대한 증언(영상 증언, 녹음)과 관련 사진들을 발굴하는 본격 시도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평 신촌에 미국 대중문화와 관련된 매체(당시 라디오, 잡지, 악보)와 백판 유통 경로, 부평 신촌 미군클럽에서 들었던 일명 ‘백판’을 수집하는 연구도 시급하게 뒤따라야 한다.

부평 삼릉에 거주하면서 음악활동을 한 연주자들을 발굴하고, 음악활동과 음악 연주곡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평 삼릉에 연주자들이 거주한 장소를 발견하고 발굴하는 조사 연구도 매우 시급하다.



참고문헌

〈자료〉

-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의 역사』, 부평문화원.
 부평사편찬위원회, 2007, 『부평사 1-부평의 공간과 자연 역사 속의 부평현대사』, 부평사편찬위원회.
 미8군 사령부, 2013, 『주한 미육군 규정 600-2』 .
 〈대중일보〉, 〈동아일보〉

〈논문 및 학술지 정기간행물〉

- 안종욱, 2005, 「영화를 통한 인천의 장소 정체성 분석」, 한국지역지리학회 11(6).
 이현석, 2004, 「대중문화에 나타난 인천 이미지 연구: 대중가요 및 영화를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제3호.
 류제헌, 김정숙, 최유리, 2010, 「인천시 아이덴티티 형성의 인구, 문화적 요인」, 인천학연구 제13호,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이준희, 2008, 「일제시대 인천 지역의 대중음악적 위상」, 인천학연구 9, 인천대학교 인천학연구원, 2008.
 김이호, 1998, 「미군방송네트워크(AFN)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석사학위논문.
 박용규, 2014, 「주한미군방송(WJIP)의 등장과 영향(1945~1950)」, 한국언론학보, 한국언론학회.
 이희동, 2005, 「부평의 현황과 자기 정체성」, 인천문화비평. 통권17,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인천지회.
 김현석, 2018, 「부평의 길과 역사」, 부평의 길을 걷다, 다인아트.

〈단행본〉

- 박성식, 2010,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책이 있는 풍경.
 부평역사박물관, 2015, 『이주민의 마음, 부평 신촌』, 부평역사박물관.
 이영미, 2006, 『한국대중가요』, 민속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포럼, 2010, 『1961~1975 한국대중음악사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C.A. 반 퍼스/강영안 옮김, 1994, 『급변하는 흐름 속의 문화』, 서광사.
 황문평, 1986, 『해방가요』, 세광출판사.
 김형찬, 2015, 『한국대중음악사 산책』, 알미출판사.
 인천근현대문화예술사 편찬위원회 엮음, 2009, 『인천근현대 문화예술사 연구』, 인천문화재단.
 김창남, 2003, 『대중문화의 이해』, 한울.
 이무용, 2005, 『공간의 문화정치학-공간』, 논형
 한만송, 2013, 『캠프마켓』, 봉구네책방
 이장열, 2012, 『한국 근대사의 문학 탐사』, 한국학술정보

〈보고서〉

정유천, 2013, 「음악도시 부평-문화정체성 찾기」,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이장열, 김현석, 박은희, 2014, 「인천지역 문화 자족성에 대한 시론적 접근」, 시민과대안연구소.

교신 :

Correspondence :

투고일 2020. 12. 00.

수정일 2020. 12. 00.

채택일 2020. 12. 00.

[Abstract]

Bupyeong study as a center of Korean popular music

lee jang lyl

From the perspective of popular culture, the causes and dynamics of the Bupyeong area that played a role as the center of Korean popular music from the 1950s to the early 1970s were examined.

As the center of Korean pop music, the conditions for popular culture to blossom in Bupyeong were the consumption, distribution, and production (creative) elements in Bupyeong Ascum City US military base, Bupyeong Sinchon, and Bupyeong Samneung, respectively, and economic conditions supported this. I found that it can work actively while giving.

Until now, Bupyeong popular music has only focused on the consumption aspect, namely, the existence of the US military base club in Bupyeong Ascum City, so it has not been reached to present the theoretical basis for which Bupyeong was the center of Korean popular music.

Through this study, as well as the US military bases in Bupyeong Ascum City, Bupyeong Sinchon and Bupyeong Samneung are the only regions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are fully equipped with elements of Korean pop music. Theoretically confirmed and verified results were achieved.

Therefore, it is the outcome of this study to confirm that the use of the three locations in Bupyeong Ascom City US Military Base, Bupyeong Sinchon and Bupyeong Samneung based on the histor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popular music should be the basic direction for Bupyeong to become a music city.

Key Words : Bupyeong Ascum City US military base, Bupyeong Sinchon, Bupyeong Samneung, US 8th Army audition, US 8th Army pickup location